

평신도 공학

양성일

(한양대학교 / 전자컴퓨터공학)

논문 초록

평신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오스'(λαός)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집합 명사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리는 엄청난 특권과 사명을 내포하는 대단히 영예로운 호칭이다(벧전 2:9).

본 논문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모두 평신도라고 가르치는 신학 곧 평신도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공학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들에게 그들 사역의 정체성과 그들 사역의 참된 의미를 다룰 수 있는 평신도 공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라건대, 공학 사역이 결코 살기 위한 방편에만 불과한 것도 아니며, 공학 산물이 최후의 심판 때에 타서 없어질 무용지물이 결코 아님을 증거 하는 평신도 공학이 되고자 한다.

핵심 주제어 : 평신도, 공학, 평신도 신학

- I. 들어가면서
- II.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
- III. 공학의 역사
- IV. 창조와 공학
- V. 영원한 공학의 흔적
- VI. 나오면서

I. 들어가면서

만인 제사장직을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개신교에서조차도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경향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 성직자는 안수 받은 목회자로 평신도보다 우월하고 평신도는 성직자를 도와 교회 일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신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평신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없다. 평신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오스’(λαός)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집합 명사로서, 신약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리는 엄청난 특권과 사명을 내포하는 대단히 영예로운 호칭이다. 이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λαός, 평신도)이다”(벧전 2:9).

또한 ‘성직자’(clergy)란 단어는 ‘클레로스(κλήρος)’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지명된 혹은 상속받은’ 자들이란 뜻이다. 이 단어도 성경에서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곧

교회는 그 구성원 가운데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평신도’는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직자’ 곧 세상에서 하나님의 봉사과 사명을 계속하도록 임명되고 상속받고 사명을 받은 자들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교회는 한 명의 사역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가 사역 곧 하나님의 사역체인 것이다(Stevens, 1999: 1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총체적으로 평신도이며 성직자이다. 이제 우리가 정립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하는 새로운 의미의 신학이다. 이 신학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모두 평신도라고 가르칠 수 있는 신학 곧 평신도(laity) 신학이다. 평신도 신학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곧 평신도가 교회당에 모여 함께하는 삶(에클레시아)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삶(디아스포라)의 의미를 탐구하는 신학이다. 그러므로 평신도 신학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학문 탐구 등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포함하며, 비천하고 하찮고 필수적인 것들을 깊이 다루는 신학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빨래, 청소, 이 세상의 구조를 유지하는 일, 놀이 게임, 예술, 여가활동, 직업, 일, 사역, 선교, 정사 및 권세와 싸우는 것 등이 포함된다. 평신도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성, 가족, 우정을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도와야 한다(Stevens, 1999: 13-14).

한국 교회의 실정을 볼 때 목회자들은, 소명 의식, 주의 종, 지도자 등의 보편화된 단어가 보여주듯 일반적으로 자신의 정체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맞는 삶과 사역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목회자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지 않은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들도 대부분은 그저 목회자의 수종자로서 목회자 중심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송인규, 2002: 7).

그러나 목회를 수종하는 일이 비성직자 평신도 본연의 임무요 사명일 수는 없다.¹⁾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대부분을 교회당이 아닌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으로 쉼어간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곧 평신도로서 자신들의 정체감과 소명 의식을 발현할 수 있는 현장이어야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평신도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공학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인 공학인들의 정체성과 소명 의식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평신도 신학의 학문 분야에는 평신도 철학, 평신도 문학, 평신도 경제학, 평신도 경영학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평신도 공학이 평신도 신학의 최전방에 포진해 있을 수 있다. 말하자면 평신도 공학이란 이 땅에 사는 평신도 공학인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중에서 공학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들에게, 그들 사역의 정체성과 그들 사역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는 신학이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펼치는 공학 사역이 결코 살기 위한 방편에만 불과한 것도 아니며, 대개가 그렇게 생각하듯 최후의 심판 때에는 타서 없어질 무용지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평신도 공학이 되었으면 한다. 오히려 평신도 공학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진정한 의미나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하나님의 최측근 대리자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자라는 자리매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우리 공학인이야말로 창조 역사의 최전방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공학의 흔적을 남기는 창조 사역자임을 변증하는 평신도 공학이 되었으면 한다.

1) 폴 스타브스는 목회자들을 성직자 평신도로 목회자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비성직자 평신도로 구별하여 지칭하고 있다.

II.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확실적인 노동관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시기는 일반적으로 일을 멸시했던 시기인데 특히 철학자들이 그러했다. 일은 저주요 순전한 악이었고 일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마디로 행운이었다. 헬라 도시 국가의 80%가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을 생명이 부여된 도구로 규정했다. 헬라인들은 소명의식이 없었으므로 사회에서 하는 개개인의 활동을 짐이나 고역으로 묘사했다. 헬라인들의 견해는 기독교화된 형태로 중세 교회에 유입되어 고착화되었으며, 현세에 속한 신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생산직은 영구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관조적인 삶은 영원을 위한 삶으로서 수도원 생활에서 성취되었다. 영적인 삶과 세상적인 삶은 상하 계층적인 관계로 구조화 되었다(Stevens, 1999: 136-137).

이와 같은 역사적 추세와 현대 그리스도인이 지닌 태도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회에서 하는 일은 내재적인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 반면에, 사역이라는 일은 영원히 남는다고 여겨진다(헬라 이원론). 전임 목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은 소명 중의 소명이다(중세의 수도원주의). 육체노동과 수공은 '창조적' 일과 종교적 일보다 열등하다(르네상스). 우리는 각자의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 개인적인 성취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마르크스, 르네상스식 인간의 자율성, 포스트모던적인 인간이 가진 개인주의와 사생활주의)(Stevens, 1999: 138).

그러나 성경은 일하시는 하나님, 즉 말씀하시고, 모양을 꾸미시고, 고안하시고, 만드시고, 조각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은 빛과 물질, 공간과 시간, 맥스웰(Maxwell) 방정식²⁾과 언어, 바다와 땅 그리고 만물 중

2)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전자기력, 만유인력(중력), 핵 강력, 핵 약력 등의 네 가지 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신다. 구약 성경에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은유가 매우 풍부한데, 하나님은 일꾼으로(창 1-2장, 욥 10:3-12; 시 139:13-16), 건설자/건축가로(잠 8:27-31), 교사로(마 7:28-29), 작곡가와 연주자로(신 31:19), 금속공으로(사 1:24-26), 의류 제조자와 의상 담당자로(욥 29:14), 토기장이로(사 31:9), 농부로(호 10:11), 목자로(시 23:1-4), 장막을 만드는 자와 아영자로(욥 9:8) 묘사되어 있다. 이 은유들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 사이에 의미상 호응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것들은 우리의 일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계점이요 따라서 의미와 영성의 근원임을 시사한다(Stevens, 1999: 139).

또한 성경은 두 가지 대비되는 시각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창 2:15) 사명을 위임받았다.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최초로 묘사한 부분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이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인간을 위해 이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 인간이 만들어졌다. 우리는 가장 평범한 방식(쓰레기 치우기, 살림살이 챙기기, 음식 만들기, 물건 팔기 등)뿐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방식(도시 계획, 국회에서 하는 일, 로켓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일, 유전자를 결합하는 일 등)을 통하여 세계를 돌본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날로 새롭게 하고 지탱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일없는 낙원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및 계획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셈이다. 일은 좋은 것이지만, 창조 세계를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이다(Stevens, 1999: 139-140).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평신도의 일은 곧 믿음을 통하여 참여하

(또는 에너지)이 편만해 있다.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기력의 작용 법칙을 설명해주는 네 개의 방정식인데, 미국의 전기공학과 학생들은 티셔츠에 “God Created 4 Maxwell Equations!”라는 문구를 즐겨 새기고 다닌다. 전기·전자공학은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여러 가지 공학 산물을 생산하는 학문으로, 전자기력을 이용한 전기·전자공학 산물에는 전기, 나침반, 전화, 컴퓨터, 인터넷, 무선통신 등 무수한 문명의 이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는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의 위대한 주제들은 하나님의 일을 상기시킨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형태를 만드시고, 제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신다. 사랑하는 분이신 하나님은 관계적인 일을 하시고, 존엄성과 건강과 의미를 부여하신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구속의 일, 고치는 일, 하나로 묶는 일, 구하는 일을 하신다. 지도자이신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일을 하신다. 여기서 삼위일체적인 관점은 포괄적인 진리를 조명해준다. 창조 세계의 청지기직에 해당하는 성부의 일과 복음의 증진에 해당하는 성자의 일이 있다. 한편 은사와 능력 부여의 일은 성령의 일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성령의 선물은 궁극적인 새 창조의 실현을 보증하는 것이므로(고후 1:22; 롬 8:23), 일 가운데 하나님과 협동 작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세상 변혁 작업을 미리 앞당겨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다(Stevens, 1999: 146-148).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평신도의 일은 곧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과의 협동 작업이다.

성부도 일하시고 성자도 일하시며 성령도 일하신다. 삼위의 각 위격은 인간의 일에 대해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삼위는 다함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초대하신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제조하는 일, 유지하는 일, 사랑의 일, 회복시키는 일, 복음 사역, 인도하는 일 등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 곧 평신도와 비록 알지 못한 채 하는 일이라는 하지만 아직 신자가 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행해지는가? 교회당과 세상에서 행해진다. 후자는 물리적인 창조 세계, 가정, 사회, 공동체, 정치, 문화, 교육, 재정 분야; 우리가 제작하고 고치는 모든 '세계들'이 포함된다. 왜 우리는 일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궁극적인 완성점에 도달하게 하시는 동안, 우

리를 동역자로 초청하여 그 분과 교통하게 하신다. 인간의 일은 하나의 의무이자 하나님을 닮은 활동이다(Stevens, 1999: 149-150). 곧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이 세계와 첫 부부를 창조하는 작업을 끝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말씀하셨다. 일은 외향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일이 생산하는 것(돈, 가족 부양 등)으로 인해 일은 선한 것이다. 또한 일은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즉 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돌아가게 하는 한 부분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자각으로 인해 일은 선한 것이다. 일은 그 자체로 선하다. 일은 우리에게 좋고, 세계에 좋고, 다른 이들에게 좋고, 또한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우리가 만든 최상의 것을 들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일터로 인도하실 것인바 그 최후의 일터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일할 것이다(Stevens, 1999: 150-152). 하나님께서 일에 대해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평신도 공학인들도 마땅히 “일은 좋은 것이야!”라는 확신으로 각자가 맡은 일을 책임있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이래 손으로 하는 노동은 좋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오히려 비천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역사와 더불어 언제나 인간은 손으로 하는 노동인 공학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III. 공학의 역사

공학(engineering)은 학문의 한 분야로 과학화되고 수학화된 기술을 뜻한다. 여기서 기술(technology)이라 함은 인간에게 유용한 재화를 생산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기술은 과학(또는 철학)과는 다른 사회적 기반 위에서 수행되어 왔다. 과학이 수사학에 능통한 학자들의 영역으로 생각되었으며 주로 철학자, 호사가, 대학교수 등의 계층에 의해 수행된 반면, 손으로 하는 노동인 기술은 일반 대중의 영역으로 이해되었으며 농업, 광업, 항해술, 또는 도기 제조업 같은 일들을 하는 장인계층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기술과 과학의 분리가 르네상스 기간에 북부 이탈리아 도시 국가에 모여온 장인들과 과학자들의 활발한 접촉으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접촉으로부터 새로운 경향을 띤 수학적 또는 과학적인 기술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기술 활동에 대한 이러한 초기의 수학적 또는 과학화는 실제적이고 기계적인 기술 안에 존재하는 과학 지식의 요소들을 강조하였다(Monsma, 1986: 82-83).

공학이란 말은 라틴어의 'engin(고안)'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으며 공학자(engineer)란 원래 군사 용구 및 시설을 설계하고 사용하는 직업인을 일컫는 말이었다. 공학이 학문의 한 분야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은 공학자가 직업인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18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교통수단과 군사 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따라 각 분야의 공학이 체계화되어, 이른바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1818년에는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시민 공학회가 결성되었으며, 공학을 '창조계에 있는 크나큰 동력원(動力源)을 사람에게 유용하도록 지배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공학이란 좁은 의미로는 과학화되고 학문화된 기술을 뜻하는 학문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는 인간에게 유용한 재화를 생산하는 모든 활동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학의 역사를 18세기부터 시작한 새로운 학문의 한 분야로서 분류하기 보다는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한 활동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학에의 새로운 의미부여 차원에서 우리는 노아를 조선공학자라 부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공학

자로 묘사하는 풍부한 은유들이 많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은 건축공학자(잠 8:27-31), 금속공학자(사 1:24-26), 섬유공학자(의류제조자)(욥 29:14), 요업공학자(토기장이)(사 31:9) 등으로 묘사된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가장 근접한 활동이 공학 활동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받은 인간의 공학 활동은 창조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공학 활동은 곧 창조 사역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IV. 창조와 공학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친히 창조하시었다. 이 창조세계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등의 여덟 번에 걸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모양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땅을 장인의 걸작품으로 지으신 것이다. 말하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공학자가 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 초에 친히 발휘하신 창조 공학-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유용한 재화를 생산하심-은 창조세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곤충을 포함하여 온갖 피조물의 즐거움과 안식을 제공해주는 창조주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창조 공학의 산물이었다(창 1:31).

역사 초에 창조 사역을 친히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사역을 인류에게 위임하여 역사 속에서 이어가라 명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는 창조 명령을 우리 인류에게 명하신 것이다. 여덟 번에 걸쳐 발하신 창조 선언들이 그대로 완성된 것처럼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신 이 창조 명령

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곧 평신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 완성될 것이다. 특히 우리 평신도 공학자는 역사의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라 마침내 완성되고야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다.

역사 초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직접 창조 또는 제1창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위임받아 이어가는 창조 사역을 간접 창조 또는 제2창조라 할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되 그 다스림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는 절대 순종하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삶이야말로 곧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역동적인 삶이다. 결국 창조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역동적인 삶이란 살롬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철학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살롬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올바른 관계로서 정의한다. 첫째, 살롬은 하나님과 정당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그분께 봉사함으로써 기쁨을 얻는 것이다. 살롬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인간이 인정할 때에 비로소 완전케 된다. 둘째, 살롬은 다른 사람에 대해 정당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인간 공동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사회가 온통 자기 자신의 일만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사회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살롬이 없다. 셋째, 살롬은 창조계와 더불어 올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잘 정돈되고 조화된 환경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육체를 가진 피조물인 인류가 노동으로 세계를 창조해 가며 그런 일에서 성취를 맛보고 그 결과에서 기쁨을 얻을 때 살롬은 찾아온다(Monsma, 1986: 19-20).

월터스토프의 정의를 정리하자면 살롬의 나라에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창조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살림은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는 조화와 질서의 상태 이되 그것은 정적과 휴식에서 생기는 평화(헬리어 'εἰρήνη'의 본래의 뜻)라기 보다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평화(히브리어 'שָׁלוֹם'의 본래의 뜻)이다. 이 평화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역동적인 복을 추구하며 누리는 삶 자체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형상 인류로 하여금 창조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의식적으로 찬란하고 고고한 문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다(이승7, 1985: 54).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길을 택하였다. 인류는 창조 명령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그 풍성한 복을 포기하고 대신에 저주를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그것이 곧 타락의 본질이다. 그 결과 불순종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위임된 피조물 전체가 복 대신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여 준행하는 자세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는 자세로 방주를 짓는다(창 6:5-22). 하나님께서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그 방주를 통하여(in the Ark) 물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벰전 3:20-21). 말하자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우리 모든 평신도의 모델이요 특히 평신도 공학인의 표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역사 초에 천지를 창조하시

고 역사 가운데에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인류는 창조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의식적으로 찬란하고 고고한 문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에덴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부왕(副王)으로 창조계에 대한 일종의 주권을 갖고 있었다(Walters, 1985: 28).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더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그곳에서부터 출발하여 충만한 목적지를 향하여 끝없이 전진하게끔 하시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종점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절대 영광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위치로 우리 인간을 끌어 올리시려 계획하신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바 우리가 바라고 올라가야 할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이다. 오늘날 우리 중 아무도 아담이 죄짓기 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만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비록 타락한 상태의 죄 있는 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바라는 바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상태의 영광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는(고전 15:20-24) 영광의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아담에게 있어서도 그 점은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우리가 공학 사역을 수행하는 이유이다. 우리에게 위임하신 창조 명령을 책임있게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마침내는 창조주의 성품에 참여할 것이다(벧후 1:4).

V. 영원한 공학의 흔적

이 세상에서의 문화와 공학 업적을 포함한 모든 산물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보존되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세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창조 당시 있었던 에덴동산에 대한 관리와 경작, 각양 동물에 대한 본성의 파악 및 분류 활동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창조 당시 에덴동산과 새 예루살렘 성 사이에는 문화적 발전이 개재되어 있다.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표상이 되는 것을 볼 때 완성될 천국에는 이러한 문화적 발전이 포함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셋째, 이 땅에서의 문화 활동이나 노력 및 문화의 열매는 천국에서도 계속되거나 보존된다(계 14:13). 여기서 ‘행한 일’이란 영혼 구원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룬 모든 종류의 일들, 곧 직업상의 노력이나 작은 선행까지도 포함된다(송인규, 2002: 203).

이 세상의 모든 일 곧 모든 문화의 산물은 영원하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이를 확증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후 3:10). 이 말씀 중에서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everything in it will be laid bare)’(NIV)라는 구절을 대개는 ‘모든 일이 불타 없어지리로다(the works that are therein shall be burned up)’(KJV)라고 해석하는 바, 이 세상의 모든 일 곧 모든 문화의 산물은 최후의 심판 때에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이해이다. 이러한 해석의 저변에는 “머리로 사고 하는 일에 비해 손으로 하는 일은 저급하며 내재적인 가치가 없다”는 헬라 이원론적인 사고가 뿌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말씀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 곧 인간이 지금까지 성취하느라 애써온 모든 ‘문화적 업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뜻이다(송인규, 2002: 211). 이 말은

곧 이 세상에서의 문화와 공학 업적을 포함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그 심판대 앞에 적나라한(bare)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역사 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친히 창조하시고(직접 창조 또는 제1창조) “보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가 담당한 공학 사역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창조 명령으로 자각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 나갈 때, 평신도 공학인이 창조한(간접 창조 또는 제2창조) 공학 업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을 발하실 것이 분명하다. 평신도 공학인은 이러한 자리매김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공학 사역에 임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만든 최상의 공학 작품들을 들고는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쳐드릴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존귀이다(계 21:26).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 우리는 그곳 최후의 일터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평신도 공학인 됨을 감사하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 것이다(계 5:13).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기에 심히 좋다!”는 말씀을 발하실 공학 산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길이길이 보존될 것이 분명하다. 적어도 노아가 제조했던 방주만큼은 그 나라에 길이길이 보존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이해 가운데 평신도 공학인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최전방에 자리할 수 있으며 노아 방주에 버금가는 공학 업적을 영원한 역사의 흔적으로 남기고자 하는 창조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VI. 나오면서

공학인 됨의 영광과 존귀는 그가 공을 들여 창조한 공학 작품이 하나님께 “보기에 심히 좋다”는 인정을 받는 데 있다. 평신도 공학인 됨의 영광과 존귀의 영원한 표상은 조선헌학자 노아이다.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100여년을 공들여 제조한 방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65) 홍수로 심판하시는 중에도, 평신도 공학인 노아는 자신에게 위임된 방주 제조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 책임 있게 수행함으로써 인류를 보존할 수 있었다. 대전국박물관에는 노아의 방주가 전시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 방주를 대면하여 보는 날 우리 모두 감탄과 환호성을 차아내리라. “정말 보기에 심히 좋다!”

평신도 공학인의 영원한 표상은 노아이다. 노아의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므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벳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눅3:36-38). 그러므로 평신도 공학인 됨의 근원은 창조자 하나님 곧 천지창조 공학자 하나님이신 것이다. 창조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 또한 그분 소유된 백성 됨을 인해 또한 그분 창조 사역의 최전방에 동참한 평신도 공학인 됨으로 인해, 창조 역사에 공학의 흔적을 길이길이 남긴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평신도 공학인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해본다.

참고 문헌

- Monsma, V. Stephen (1986), *Responsible Technology*, Grand Rapids: Eerdmans,
양성일 외 역 (2000), 『책임 있는 과학 기술』, 서울: CUP.
- Stevens, Paul (1999), *The abolition of the laity*, Cumbria: Paternoster Press, 홍병룡
역 (2002),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서울:IVP.
- Wolters, M. Albert (198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Eerdmans, 양성만 역(1992), 『창조·타락·구속』,
서울: 기독교학문연구회·IVP.
- 송인규 (2002), 『정말 쉽고 재미있는 평신도 신학 ①』, 서울: 홍성사.
- 이승구 (1995), 『개혁신학에의 한 탐구』 서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ABSTRACT

Laity Engineering

Sung-il Yang

The Greek word 'λαός', which is pertinent to the word 'laity', is a collective noun pointedly called God's people. Therefore every Christian is a laity, which is a glorious name meaning the great privilege and ministry as a people belonging to God(1 Peter 2:9).

This paper presents Laity Engineering dealing with Christian Engineer's identity and a sense of calling in a viewpoint of Laity Theology. The concept of Laity Engineering hopefully testifies that the engineering ministry is not just a job for a living and the engineering products are not useless things, which shall be burned up as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Key words : laity theology, engineering, Christian worldview